

# 지구상의 생물과 친하게 지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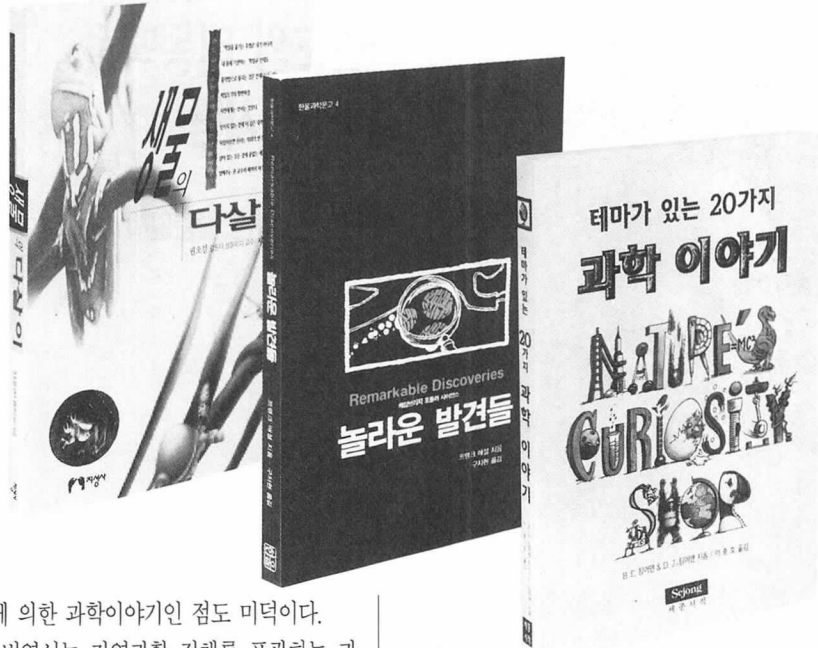
## DNA에서 클론까지 생물학 정보 제공

자연과학의 이론과 과학사를 쉽게 풀어쓴 교양서가 몇권 선보였다. 특히, 자연과학 가운데 생물학 분야를 비중 있게 다룬 것이 이 책들의 공통점. 생물의 다살이에서 DNA(디옥시리보핵산)에 얽힌 비밀을 푸는 과정을 거쳐 '클론'에 이르기까지 첨단 생물학 정보를 제공한다. 이들 책은 과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과학적 이론에 익숙치 않은 일반독자를 위해 그림과 표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보인다.

《생물의 다살이》(지성사)는 권오길 교수(강원대 생물학과)가 각종 지면에 썼던 생물학 칼럼의 모음. '다살이'는 '다'와 '살이'의 복합어로 자연생태계의 공생하기, 기생하기 등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공생을 뜻한다. 다살이의 대표적인 예는 나비 유충, 진딧물, 개미의 공생이다. 개미는 유충을 공격하는 것이 상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유충을 해치려는 말벌을 개미가 쫓아주며 유충의 똥구멍에서 꿀을 빨아먹는 개미가 있다.

이웃과 친하게 지내려면 먼저 통성명을 해야 하는 법. 생물의 학명에는 엄연한 규칙과 규약이 있건만 전공서적에도 학명표기의 오류가 있고, 신문이나 약광고 등에서는 학명이 뭔지도 모르고 잘못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권교수는 지적한다. 생물의 우리말 이름을 예로 들면, '민 미꾸리 낚시'가 아니라 '민미꾸리낚시'가 맞다. 생물이름에는 성은 없고 이름만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자연을 통해 세상과 사람을 보는 따뜻함이 드러나는 것이 이 책의 특색. 한톨을 얻기 위해 여든여덟번 손길이 간다는 쌀이야기나 훈령이 되어 은혜를 갚는 그렁 풀이야기가 그렇다. 드물게 보는



국내학자에 의한 과학이야기인 점도 미덕이다.

두권의 번역서는 자연과학 전체를 포괄하는 과학에세이지만 생물학의 비중이 크다. 프랭크 애설의 《놀라운 발견들》(한울)은 생물학자가 바라본 과학의 역사다. 저자는 《인디펜던트》지와 일하면서 전공 이외의 과학영역에 대한 무지를 깨닫고 다양한 분야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이 책은 물리학·우주론·생물학·의학·화학·지구물리학·수학 등 모든 과학 분야에서 이뤄진 신나는 발견들을 흥미롭게 다루고 있다.

15장~18장은 DNA의 발견과 그 응용을 서술했는데 저자의 전공지식이 유감 없이 발휘된 탓에 난해한 대목이 많다. 저자도 그런 점을 미리 파악한, <DNA, 분자탐정>을 통해 흥미를 유발시킨다. 83년 잉글랜드의 앤더버란 곳에서 발생한 연쇄 강간살인 사건의 범인 색출에 'DNA 지문법'이 사용된 과정을 보여준다. 유전물질의 분자적 본질인 DNA는 사람마다 배열구조가 다른 특성이 있다. 더구나 매우 적은 양의 혈흔이나 정액 같은 체액을 통해서 판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문감식이 불가능한 범죄에 유용한 증거가 된다.

《과학이야기》(세종서적)의 주제는 모두 20가지. 대체 의학, 열대 우림, 가상 현실 등을 오가며 과학의 신기를 쫓는 모험을 펼치기도 하고, 깊이 있는

과학이론을 탐구하기도 한다. 가장 흥미를 끄는 부분은 아무래도 셋째마당 <낯선 시간 속으로>. 예측을 불허하는 21세기 과학의 향연이 펼쳐진다.

클론(clone)은 유전적 복제물이란 의미로 복제 인간을 일컫는다. 이 책은 클론의 작품이다. 이 책을 함께 쓴 B. E. 짐머맨과 D. J. 짐머맨은 쌍둥이 형제다. 이들은 과학교사로 일하며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과학에세이 집필에 힘쓰고 있다. 복제(클로닝)는 생물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 거의 모든 식물들은 자신을 클로닝한다. 감자 식물의 덩이줄기, 딸기의 덩굴, 튼들의 구근 등이 클로닝을 통해 생식을 한다.

문제는 클로닝을 동물에 적용했을 때 발생한다. 더구나 인간의 정자와 난자를 이용한 클로닝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클론' 형제는 중간의 입장을 취한다. '인간 농장'이나 '자궁 빌리기'가 등장할 수도 있지만, 불임의 극복이나 난치병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최성일 기자

## 좋은 나무여야 좋은 책을 엮었듯이 ...

종이가 없었던 춘추전국 시대에는 나무조각(木簡)이나 대나무조각(竹簡)에 문자를 새기고 그들을 엮어서 책(冊)을 만들었습니다. 수레 가득히 목간을 싣고 여행을 떠났다는 당시의 사상가들에게 목간(木簡)을 만들 질 좋은 나무가 꼭 필요했듯이... 늘 종이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기업 - 우정지업이 여러분의 출판, 인쇄문화 창달에 큰 몫을 거들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종이공급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 모조지 / 아트지 / 서적지 / 라인 코트지 / 중질지
- 스노우 화이트지 등 일반용지 ● 레자크, 레이드지 / 색지
- 밍크지 / 세미그로스지 / 엠보싱지 등 특수용지
- ※ 변규격/종이상담환영

(주)우정지업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89-22 서교진 BD 101호

Tel: 325-8162 Fax: 325-8163



# '제3의 눈' 창의력 키우는 책 활발

## 지식암기의 반쪽 천재 지양... '창의성' 개발의 새 움직임 반영

두뇌를 좋게 하는 음식 섭취법, 내 아이 천재로 키우는 법 등이 장악하고 있던 어린이 교육서와 여성 실용서 코너에 '창의성 키우기' 책이 나와 교육계의 새로운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다.

《엄마가 고정관념을 깨면 아이의 창의력은 자란다》(한숙경 편저, 한울림) 《창의력 느끼기》(승영조 지음, 민) 《새로운 생각 새로운 기쁨》(김남정·김영자 지음, 성원사) 《창의성을 잡아요, 확》(전경원 지음, 창지사) 《당신은 자녀를 창의적인 아이로 키우고 있습니까?》(문정화 지음, 한빛) 《창의성의 초대》(임선하 지음, 교보문고) 《창의적인 아이는 호기심이 많다》(심미정 지음, 두산동아) 등 대강 쏟아 보아도 10여종을 헤아린다.

이미 국외에서는 이론적인 연구와 실제 적용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지만 국내에 도입, 활발히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 학자들의 연구로서가 아니라 일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들이 출간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년 안팎의 일이다. 짧은 시간 안에 이 정도의 축적물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창의력 교육의 열기를 반영한다.

이들 책은 모두 창의력이 다음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도적 힘이 되리라는 말로 시작한다. 그리고 창의력은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는 것. 현재 출간된 대부분의 책은 크게 자녀들의 잠재된 창의력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까 하는 방법론의 문제를 담은 것과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교사용 지침서로 대별된다.

《엄마가 고정관념을...》은 7년 간의 교직경험과 상담심리학 공부를 바탕으로 창의력을 키우는 구

체적인 방법 146가지를 소개했다. 그는 '아이들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적절하고 효과적인 자극만 주어진다면 스스로 배우고 생각한다'며 부모는 이런 아이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예민한 관찰력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어떤 부모가 아이들의 창의성을 꺾는지 소상히 밝혀 창의성 교육의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당신은 자녀를...》 역시 학부모에게 지침이 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많이 소개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일상적인 말 가운데 그런 건 몰라도 돼, 시키는 대로 해, 쓸데없는 것 좀 하지 말아라 등의 20개 말이 어린이 교육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창의력 느끼기》는 창의력이라는 '제3의 눈'을 통해 일상적인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음으로써 '삶을 향유할' 수 있음을 역설하고, 특히 책읽기에서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다.

학부모들에게 유용하도록 생활 속의 실천사항을

묶어 놓은 이들 책에 비해 교사나 전공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쓴 책도 여러 권이다. 잘 알려진 전래 동화를 읽고 다양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교재처럼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만든 《창의성을 잡아요, 확》이나 일반 학습지와 비슷한 양식의 창의력 학습개발학습지를 200여페이지에 할애한 《새로운 생각...》은 모두 교육현장에서 곧바로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창의력 개발에 학문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창의성의 초대》는 창의적 사고의 이론적 이해,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창의적 사고의 지도방법, 창의성의 측정 및 평가 등을 담았다. 가장 최근에 선보인 《창의적인 아이는 호기심이 많다》는 현직 교수가 자녀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담아 펴내 특이하다.

아이가 쓴 일기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책은 말쑥한 아이가 보여주는 공통적인 행동양식을 요령있게 뽑아내 교육심리학적 관점에서 아이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도할지 보여준다.

창의력 키우는 책의 갑작스런 양산에 대해 한숙경씨(34, 교사)는 "이제까지의 교육이 단편적 지식을 암기시키는데 주력해, 적응력이 부족한 반쪽 천재만을 양산해 왔던 현실에 대한 반성의 결과"라고 지적한다. 세상의 모든 아이를 천재로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사회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 생명력을 가진 아이들이 자라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 이현주 기자



좋은 출판 소재나 출판 원고를 찾습니다.  
출판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대행합니다.

바른 과정, 좋은 책 —

우정 미디어의 출판 대행 서비스

지은이의 출간의도를 정확하게 청취.  
원고 검토 후 출간 및 마케팅 종합계획을 수립.  
저자와 함께 합리적 디자인 방향을 결정.  
PR방향 검토와 보도자료 제작.  
광고 계획서의 작성과 광고집행.  
서점 진열과 판매 동향에 따른 판촉활동.  
재판 발행을 위한 보완 및 수정.

(주)우정미디어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89-22 서교진 BD 101호  
Tel: 324-9762 Fax: 338-0192

WOOJUNG  
media